

8월 르완다 소식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

후원교회와 성도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 건강하신지요?

르완다에는 “Kwibuka Imana bitanga icyizere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희망을 품는 것이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것은 현실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내일의 희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겠다는 자신들의 신앙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식 및 기도 제목)

1. 키갈리 장로교단(EPR)과 교회 교육(Church Education)의 목적으로 방학을 맞이하여 초중고 학생들과 주말 학습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력하고 있는 ISANO 장로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주일학교 55여명의 학생, 자원하여 섬기는 2명의 교사를 중심으로 금요일과 토요일에 성경과 수학, 물리, 영어 과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 교육을 시작으로 키갈리 장로교단 중심의 교회교육 운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 르완다 장로교단의 키갈리 노회에 개인사무실을 요청했는데 노회장의 승낙으로 개인사무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무실은 르완다 장로교단의 교회 교육 지원센터로 사용될 것입니다. 르완다의 2021년 인구 통계자료를 보면 18세 이하의 청소년 인구가 전체인구의 48% 정도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가 증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르완다 미래는 이들 세대에 달려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미래세대를 잘 양육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지원센터가 르완다 장로교단과 함께 교회 교육에 대한 정책과 대안 공유, 그리고 교회 교육을 위한 도구들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중심 센터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3. 건축 지원했던 기캄바 교회 건축이 거의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원의 어려움을 겪는 교단과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교회 건축이 늦어지지만 기도하며 길을 여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인내하는 저들의 믿음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의 간절함을 들으시는 주님께서 이들의 희망을 이루어주시도록 기도와 물질후원을 부탁드립니다.

4. 간절함과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차량운송으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국과 해외에서 사업을 하시는 지인 집사님께서 개인 후원으로 차량운송으로 인한 어려움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르완다 집 임대료(매달 600\$)의 부담을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잘 해결되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르완다 강 일순 선교사